

천연염색의 역사

염색은 인류가 탄생하여 색채를 자연의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피하고, 또 굶주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을 위로하고 악마나 영혼의 재난에서 피하기도 하며 외적에 이기기 위한 주술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

식물염색은 자연혜택을 받아 성장한 식물의 잎과 꽃, 열매, 수피, 심재(芯材), 그리고 뿌리 등에 포함된 색소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것을 말하며, 또 동물 염색이란 동물의 피나 즙, 보라 조개, 붉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집인 오배자나 선인장에 기생하고 있는 벌레(蟲) 즉 코치닐이나 커미즈 등으로 염색하는 것이다. 한편 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이나 바위나 돌에 생기는 버섯, 암균을 이용해 염색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리고 광물의 돌가루나 흙을 이용하여 안료를 만들어 염색하는 방법도 있다. 염색은 인류가 탄생하여 색채를 자연의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피하고, 또 굶주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을 위로하고 악마나 영혼의 재난에서 피하기도 하며 외적에 이기기 위한 주술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오늘날과 같이 천이나 종이 등에 갖가지 색을 물들이는 심미적인 의미의 염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자연의 재해나 질병, 굶주림 등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행해진 신을 위로하는 주술의 한 방법으로 염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염색의 자연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소복을 입고 자연 속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묻혀진 녹청점이나 포도, 산딸기 등의 과일이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옷에 묻었던 착색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것은 천을 끓여서 물들이는 염색 이전의 원초적인 염색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몸에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자연속

에서 치료액을 취하게 되었는데 나뭇잎을 그대로 따서 바르거나 치료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 잎에서 즙을 내거나 쪼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염착이 이루어지는 염색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매염제의 사용도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발생한 염료는 처음에는 단지 신체를 가리는 옷으로 시작된 것이 그 옷에 아름답게 채색해 보고 싶은 정서를 찾아 자연의 공기나, 물의 색, 선명한 꽃이나 수목의 색을 자신의 신체에 옮겨 장식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게 되어 염색의 발전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결국 19세기에 이르러 인공적으로 염료를 만들 때까지 인간들은 자연의 생물 또는 흙으로부터 아름다운 색소를 구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경생활의 시작과 함께 섬유 식물의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섬유를 꼬아서 실을 만드는데 사용된 방추차가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다. 고대 한국 직물문화는 북방계 문화의 바탕으로 인도에서 전래된 화남문화가 수용되었다.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인도의 아유타 공주를 왕비로 맞이됨에 따라 문명의 발생지인 인도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불교와 도래와 함께 본격적인 중국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삼한 시대에는 이미 마포, 면포, 회, 금, 수, 등의 비단과 계와 모포 등 다양한 포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에는 염색이기보다는 착색이었을 것이며 직물의 잎이나 줄기 및 꽃잎, 초본, 과실을 이용한 초즙, 회즙과 흙, 동물피 등으로써 표면에 도포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염색에 사용된 직물은 문헌상 삼천 종을 셀 수 있고, 민속학적 조사를 하면 그 수는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상고시대 : 우리의 서조인 500여년 전에 정착한 신석기인 들은 저급한

원시적인 의료생활은 벗어났다. 토기 문화인 유입으로 색료의 채취 및 응용은 색의료 실려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토, 초즙 등의 식물성 염료 등을 사용하여 천에 도포하는 염색법이 있었다는 것은 쪽염색도 가능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염료 재료가 쉽지 않은 그 시기로써 백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염색하지 않은 채로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실정을 추측할 수 있다. 염색 옷을 입는 신분을 제한한 제도로는 고려 복기사에 이르러 지적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여에서 염직물을 많이 직포하였으나 이런 고급직물을 직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선은 문양을 짜 넣는 포를 말하며, 금 같이 귀히 여기던 것으로 서양에서는 일찍이 잉카 유적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② 삼국시대 :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염료는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고구려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에 와서 쪽물의 염색은 비록 상류계층에 국한됐지만 널리 쓰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 고구려 - 고구려 의복을 살펴보면 주부의 복색은 음양오행설에 의한 복색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갈의로 표현된 서민의 복색은 갈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풍부한 색의 염색술이 발달하였으며, 여러 방법으로 문양도 나타내는 염색이어서 침염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복색으로 사용된 색은 赤, 黃, 靑, 白, 黑, 紫, 線, 분홍색(粉紅色) 등으로 식물염료인 쪽, 홍화 그 밖의 나무를 태워 우려낸 즙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백제 - 백제는 부여 국가 중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마한을 기준으로 하여 건립된 국가였던 만큼 일찍부터 중국의 공복제도를 받아들여 지금에 따라 의복의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왕을 비롯한 관료들은 복색이 붉은색 계통이며 이 당시 많이 사용한 색은 紫, 赤, 靑, 黃, 白색 등이다. 백제의 특징은 일반 평민에게 자의 와비를 착용을 금함으로 차지와 피차자의 구별이 뚜렷하기 위하여 법을 남겼다.

* 신라 - 신라의 염색기법은 일찍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흥왕 1년에 육부인 색존 비의 제도를 정하여 그 직위에 따라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즉 태대각간으로부터 대아찬까지는 자주색, 아찬에서 급찬까지는 붉은색, 대나마에서 나마까지는 푸른색, 대사에서 선저까지는 노란색을 착용케 하였다. 삼국사기 40권에도 법흥왕 7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들이 공복을 정하여 옷 색깔의 순위를 정하였다는 것이다. 500년대부터 600년대에 걸친 제군관 제도에서는 옷깃 색으로 신분을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복식의 염색이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일반 평민들은 천연섬유 그대로를 입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백색을 숭상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③ 고려시대 : 고려 시대에 와서는 통일 신라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된 고려는 문화가 신라 문화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책 없는 현황이 나타난다. 왕의 복색이 신라와 같은 자황색으로 말엽인 32대에 자황색 의복이 대황색으로 변해 왔던 것이다.

제정 도니 공복 제도를 보면 고려시대의 색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세대 와서는 전대와 달리 복장에 금색의 제도가 강경하지 않아 좀더 다양한 복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다. 일반 백성에서도 의복에 염색을 하는 일이 성행하였던 거 같다. 후대에 와서는 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급 관직에 있어 년한 저근에 따라 이동되며 의복 모양을 달리 하였던 것 같다. 이때 사용된 빛깔이 대체로 청색 자색이 중심이었던 것 같고, 청색의 염료는 쪽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송의 각색 문화 직물이 고려의 직물과는 비교가 되며 여말에

는 조복에 쓰이는 고구려가 아니므로 조복을 동서 오품 이하에 착용케 함은 고려말 염직물의 생산을 막는 일이다. 고려의 상공업을 크게 둘로 나누면 관영공업과 사영공업으로 나눌 수 있다.

관영직조는 수공업장인 “도염서” 등을 두어 전문 장인인 염료공장과 염색을 담당하였다. 사영공업은 귀족자의 사용으로 임여 생산물을 교환무역에서 소비하게 하였고, 여성에 있어서 사원에 직조된 직물은 조정 및 의료에 유당하였으나 염색직물은 없었다.

고려에서는 이런 일부 특수층을 위한 것이거나 염직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삼국을 거치는 동안의 훌륭한 직물과 우수한 기능인이 고려에 와서는 더욱 심해짐으로 훌륭한 기능인을 외국에 빼앗기는 한편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한 자손에게 계승시켜 대대손손의 자랑스런 가업으로 남기지 않으므로 국내의 경제사정과 고급견직물을 장려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고려 염직물의 저조한 현상을 나타냈다.

④ 조선시대 : 복식의 염색이나 모양을 국가에서 통제하여 어느 시대보다 복식에 의한 계급의식을 선연히 나타냈던 시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염색도 고려시대에 이어 발전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쪽물염색과 홍화 염색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우리 나라의 염료의 시종은 유청, 혹은 쪽물인데 이것은 잎과 줄기를 이용하여 착염한 것이었다.

옷감을 염색하기 시작한 것은 상류 상회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었다. 이것이 조선 초에 백색의 착용을 금함으로써 조선시대에는 보다 활기찬 염료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삼국시대부터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그 제조방법은 쪽물 염색이다. 관복과 제복의 대부분이 쪽물을 염색한 의복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평민 생화에서 사용했던 마류(삼베)보자기이며, 그리고 염색하기 전에 색에 대한 심리 및 철학적

배경을 논하면 조선시대 복식은 암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중심은 중국의 음양오행설에 한본을 둔 오방정색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새로운 철학이론이 등장하였다. 오방정색인 황, 적, 청, 흑, 백색을 중심으로 살피면 각색에 해당하는 식물염료를 살펴보았다. 붉은색 계열에 속했던 조선시대의 복색으로는 정색과 홍색을 비롯하여 다홍색, 꼭두서니, 연지색, 비색, 주황색, 분홍색, 비홍색, 자색 등이 이었다. 조선조에는 홍색을 왕의 복색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색의 강도에 따라 약간 달리 하였으나 푸른 계열의 색명으로는 청색, 푸른색, 갈매기색, 검푸른색, 반물색 등이 있었다. 청색은 일반인에게도 허용되었던 것만큼 조관에서는 선비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며, 웃웃으로 입혀졌던 도포의 길복이 청색이기도 하였다.

푸른색의 염료는 남, 님의장풀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그 밖의 닥나무잎, 수장나무 열매 등이 쓰여지기도 하였다.

검은색 계열에 포함되었던 조선시대의 복색은 흑색, 검정색, 현색 등이 있었다. 검은색을 물들이는데 사용했던 염료는 갈매기 나무 껍질, 가래나무열매, 진달래를 태운 재, 물푸레나무를 태운 숯의 분말 등이 있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식물염료는 고려시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염료가 개발되었고 염료법도 많이 발달되었다.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 이후에는 산업이 발달하고 실학이 들어옴에 따라 전체의 문화 수준이 수직 상승을 일으켜 염색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관청에서는 관리하는 염색장으로는 그 수요를 따라 잡기 어렵게 되었고 일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국초기 공조에 각종 기능장인들을 두는 제도는 정조 3년에 전부 폐지되었다. 영·정조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조선시대의 염색법은 그 뒤 국운의 쇠락과 함께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여 개화기 이후 서양에서 합성염료가 도입되면서부

터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서구화의 물결에 천연염색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6.25를 전후로 완전히 단절되는 듯 하였으나, 소수의 장인들로 인하여 기억으로 전승하구 몇몇의 뜻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해 가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천연염색이라 하면 쪽, 홍차, 소목, 치자, 오배자, 감 등 몇 종에 지나지 않았으나 요사이 전통 문화를 새롭게 평가하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십여 종의 새로운 천연염색이 재현되고 개발되었다. 천연염색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해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연스러움에 자족하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천연염색의 색감들은 여러 가지 색들이 자신의 색을 드러내면서 다른 색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만 하다.